

## 보충시정질문답변(서면)

김삼중 의원

## □ 질 문

-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300톤 증설할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와 타시·군의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예상되는 세외수입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 □ 답 변

소각장 증설 문제는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집단반발을 불러 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나 우리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 합리성 측면으로 접근해 보고자 대장동 종합처리시설의 건설을 맡고 있는 (주)대우건설, (주)대우엔지니어링측에 1차 종합 검토를 의뢰하여 지난 2. 24일 제출받은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소요 공사비는 기계공사비 180억원, 전기공사비 20억원, 계장공사 22억원, 건축공사 18억원, 토목 및 설비는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직접공사비 240억원, 기타경비 30억원, 총 2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음

공사기간은 착공 후 시운전 및 신뢰성 검사 6개월을 포함하여 약 24개월이 소요되며, 증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장점으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기존시설 활용으로 인한 부대설비 불필요, 현 건설 부지에 설치함으로써 민원발생을 극소화하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한 열 판매 수입 확보, 정기 보수 기간 중 교대운전 가능한 물론, 폐기물 소각시설의 광역화 국가 정책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의 75%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서울, 인천 소각건립비용 분담을 통하여 우리 시의 소각건립비용 지분을 15% 이하로 하여 약 40억 5천만원 분담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최첨단 소각시설을 확보할 수 있음

그러나 예상되는 단점으로 타지역 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역주민의 집단 반발, 폐기물 반입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렇게 일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증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세외수입으로는 열 판매비 11억 4백만원, 소각수수료 44억 8천9백만원 등 총 55억 9천3백만원이 예상되나 운영비용 전력비, 연료비, 용수비, 화학약품비, 소모품비 등으로 약 21억 7천7백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순수한 세외수입은 34억 1천5백만원이 예상되고 있음

향후 폐기물소각시설의 광역화는 지역이기주의와 넘비현상이 팽배한 현실에서 시대적인 흐름이며,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이해 설득,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음